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Contributing to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 Type and Amounts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Household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 수 김 순 미*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박 미 려**

Dept. of Consumer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Soon-Mi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Doctor's course : Park Mee-Ry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contributing to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 type and amount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household. For this study, the 6th KLIPS data was used, and sample size was 1,679 households including those with head of household being over the age of 50.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frequency, percentil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Heckman analysis.

First, Interchange amount of Benefits type househol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householder's gender,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spouse, age, educational background, home ownership, family type and place of residence. However, interchange amount of provide- type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householder's gender,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spouse, educational background, whether retired or not, and home ownership.

Second, The receptive type of households and net receptive expense of households in terms of the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s, and the findings of Heckman analyses suggest that the variables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ceptive types of financial interchanges were as gender, age, education level, retired or not, and current economics. Factors having an effects on net receptive expense were age, and family type and for the number of receptive of financial resources, whether there is the receptive of financial resources, total income, total asset.

Third, The supplying type of households and net supplying expense of households in terms of the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s, whether or not the type of financially supplying households is significant were residential area, total income, house ownership. Factor having an effect net supplying expense were age, family type, whether there is the supplying of financial resources, family satisfaction, and house ownership

▲주요어(Key Words) : 중·고령자 가구(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household), 경제적 자원 교류(the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s)

* 주 저 자 : 김순미 (E-mail : kimsu@cnu.ac.kr)

** 교신저자 : 박미려 (E-mail : park_mr@hanmail.net)

I.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인이 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기회를 상실하고 재취업의 기회도 줄고 있으며, 미비한 국민연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자신의 노후부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적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다(이병희, 2005). 또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인구의 감소, 중위연령 및 고령화 지수의 상승, 부양인구 증가와 부양비용 증가 등은 노인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장기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노인들은 주로 가족이나 자녀들의 지원에 의해 은퇴 후 생활을 보장받았을 뿐 아니라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현대는 개인생애주기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회와 사회적 활동이 확대된 자녀들은 재정적 자립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결혼 및 분가 후에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의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중년기 가구에서는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의 교육 및 결혼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한편,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간 경제적 자원의 지원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제공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수혜자에 입장에도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과 같은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은퇴연령이 낮아지면서 개인들은 중·고령기 이후 상당기간을 은퇴기간으로 보내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재정적 자립문제와 세대 간의 지원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김영순, 2007; 이선형·김근홍, 2003).

2006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중 이전소득은 약 25만원이며, 이는 전체소득의 약 8%를 차지한다. 또한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의 78%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상속, 증여, 선물 등을 받는 사적이전의 수혜자이며, 2004년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사적이전이 주로 부모자녀 관계 중심의 가족 간 경제적 자원 교류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가족 간 경제적 자원 교류는 과거에 많이 보았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특정한 계기와 목적을 갖는 일방적 자산이전(endowment)형태에서 벗어나 생활비나 용돈 지원(support)과 같이 가족 간 일상적인 경제적 자원 교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간 경제적 자원교류에 관한 국내연구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이전에 관한 연구(배희선·최현자, 2002;

정영숙, 2002; 이정음·김명자, 2001; 문영소·김양희, 1999; 배종열, 1997),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자녀들의 심리적 부양 부담감에 관한 연구(윤성민, 2000; 이윤정, 1994), 공적·사적 교류의 상호 보완으로 저소득 가정의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족 복지 기능에 관한 연구(홍경준, 2003; 백은광, 2000; 손병돈, 1999, 1998; 진재문, 1999; 하윤숙, 1999; 김기덕·손병돈, 1995)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외연구들(Altonji et al., 1997; Secondi, 1997; McGarry & Schoeni, 1995, 1997; Leiyu, 1993; Cox & Rank, 1992; Cox, 1987; Behrman et al., 1982; Shi, Tomes, 1981)은 가족 간 경제적 자원 교류를 타가구로부터 유입되는 현금 및 현물 그리고 시간서비스의 합으로 보면서 가족 간 경제적 자원교류의 종류와 범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선행 국내 및 국외연구들은 사회적, 경제적, 가족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경제적 자원 교류가 이루어지는 행동 및 의식 특성의 차이를 다루었기 때문에 공·사적 자원 이전에 관한 전반적 흐름을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제적 자원 제공자와 수혜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거나 실질적 교류효과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 자원을 일상적 경제적 자원 교류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제한점 또한 갖고 있다. 특히 개인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중·고령자가구가 경험하는 부모부양과 자녀지원의 문제를 경제적 자원의 흐름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초기적 단계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 간 경제적 자원교류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과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의 세부적인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와 경제적 자원 교류를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 및 모델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자원 교류의 개념 및 유형

경제적 자원 교류는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는 제공자와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경제적 자원을 지원 받는 수혜자 간의 교류이다. 자원의 교류는 그 주체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주체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수혜와 가족 및 본인 이외의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이전(public transfer), 그리고 개인 및 가족 간에 특별한 반대급부나 수혜자격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이 있다(김기덕·손병돈, 1995). 또 기능적 측면에서는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경제적 교류, 신체적 독립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적 교류, 감정

과 정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정서적 교류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교류의 경우 주체적 측면에서는 사적 이전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현금이나 현물을 주고받는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미려, 2007).

한편 경제적 자원 교류는 교류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김두섭 등(1999)은 부모와 성인자녀들의 경제적 교류, 정서적 교류, 도구적 교류를 분석한 연구에서 경제적 자원 교류를 부모나 자녀가 쌍방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쌍방향 지원,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일방적 지원, 부모와 자녀 모두 도움을 주고 받지 않는 무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또 윤현숙(2003)은 노부모와 자녀간의 교류를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상담 지원으로 보았고, 노부모가 자녀에게 준 지원의 양과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의 양의 차이를 계산하여 노부모와 자녀가 주고받는 양이 같을 때 상호호혜형, 노부모가 자녀에게 준 지원이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보다 많은 때 공급형,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이 자녀에게 준 지원보다 많을 때 수혜형으로 구분하였다. 한민아(2004)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에서 세대 간 교류유형을 노부모와 지원을 주고 받는 쌍방향, 노부모에게 지원을 받기만 하는 자녀수혜형, 노부모에게 지원을 주기만 하는 자녀지원형, 노부모와 자녀가 전혀 지원을 주고 받지 않는 무교환형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김지연(2006)은 부모와 성인자녀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을 경제적 자원을 서로 주고 받는 상호교류형,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는 자원수혜형,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자원제공형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 교류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그 개념을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먼저 부모부양의 동기와 재분배 효과를 연구한 손병돈(1999)은 가족 간 경제적 자원교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로부터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생활비 및 용돈, 현금, 선물, 음식 등의 형태로 받은 수혜량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량을 제외한 값으로 경제적 자원교류액을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진재문(1999)은 사회보장 교류와 사적교류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적교류로 1년간 받은 생활비, 용돈 등의 현금과 선물과 같은 현물의 현재 화폐가치를 합하여 경제적 자원 교류액으로 보았으며,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교류의 분배기준을 분석한 배희선·최현자(200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교류의 개념을 개인이나 가구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수단으로 보았고, 이는 현금이나 현물 등의 경제적 자원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지경·송은경(2004)은 경제적 교류의 개념을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보조금, 현물 등을

포함한 교류액으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경제적 자원 교류는 크게 경제적 자원을 주고 받는 호혜형, 일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주기만 하는 제공형,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받기만 하는 수혜형, 경제적 자원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무교류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경제적 자원 교류 관련 이론

일반적으로 가족간의 경제적 자원 교류는 자원을 제공하는 동기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경제적 자원교류에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동기이론(Motive Theory)을 들 수 있으며, 동기이론에는 교환이론과 이타주의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교환이론에 의하면 경제적 자원 제공자는 자신의 효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수혜자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자원을 제공받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Cox, 1987). 이에 비해 교환이론에서는 부모가 자신들에게 보다 잘하는 자녀에게 많은 상속을 하며, 이러한 동기이론에 의해 경제적 자원이 제공되는 경우 재산을 많이 가진 부모는 더 많은 자원을 자녀에게 제공하게 된다(박미려, 2007; 손병돈, 1998).

이밖에도 경제적 자원교류는 이타주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수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수혜자의 복지증진의 효용이 가족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이타적 동기에 기초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로, 특히 부모가 자녀를 여러 명 두었을 때,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자원을 지원받은 자녀의 소비축진은 자녀의 복지뿐만 아니라 부모의 복지도 증진시키게 된다(고선강, 2005; Becker, 1991).

3. 가족 간 경제적 자원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 인구학적 변수

성별과 경제적 자원 교류와의 관계(Cox, 1987; McGarry · Schoeni, 1995; Secondi, 1997)에 의하면, 가족 간 경제적 자원을 교류할 때 지원대상이 무배우자이면서 어머니인 경우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과 규모가 늘어난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자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는 사회적 차별을 받는 여성에 대해 일종의 보상측면이 있기 때문이다(Cox, 1987).

또 연령과 경제적 자원 교류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자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들(진재문, 1999; Cox, 1987; McGarry & Schoeni, 1995, 1997)이 있는 반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교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McGarry & Schoeni, 1995). 이밖에도 부모가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을 경우 부모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자녀로부터 더 많은 교류액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김지경·송은경, 2004; Secondi, 1997)에 비추어 볼 때 연령층에 따라 경제적 자원 교류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력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부모가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학력과 경제적 자원 수혜 가능성 간의 정적 관계를 보여 주는 연구결과들(김지경·송은경, 2004; 손병돈, 1998; 진재문, 1999; Cox, 1987; McGarry & Schoeni, 1995, 1997)을 볼 수 있다.

은퇴유무는 경제적 지원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하면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손병돈, 1998; McGarry & Schoeni, 1997). 이처럼 은퇴유무는 가구의 경제적 자원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녀보다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와 경제적 자원을 교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김지경·송은경, 2004).

경제적 자원 교류 실태는 가족유형에 따라 다른데(박능후·송미영, 2006), 부부가구에 비해 부모 중 독거가구일 때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손병돈, 1998; Lee et al., 1994; Mutran & Reitzes, 1984), 부부가구는 가족의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자녀에 대해 이타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재정적 자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Kotlikoff & Summer, 1981; 김지연, 2006에서 재인용).

또 경제적 자원 수혜 및 제공이전자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전통 및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가족 간 경제적 자원 교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녀 중 장남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손병돈(1998)의 연구결과와 재산 상속 및 성인자녀의 부모부양에 있어서 딸보다 아들이 우위에서 작용한다는 배희선·최현자(2002)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2) 심리적 변수

현재 경제상태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의 인식은 가족 간 경제적 자원 교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소득과 경제적 자원 교류의 동기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지경·송은경, 2004; 배희선·최현자, 2002; 백은광, 2000; 진재문, 1999; 하운숙, 1999; 손병돈, 1998; Secondi, 1997; McGarry & Schoeni, 1995, 1997; Cox & Rank, 1992; Cox, 1987)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 즉, 현재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면 경제적 자원 제공에 따른 한계부담이 적어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자원 이전 규모와 정적

관계를 지니며 부모와 자녀 간의 일상적 접촉 및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자원이전 또한 높다(손병돈, 1998; McGarry & Schoeni, 1997).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자원교류가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유대관계가 반영된 행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진재문(1999)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지원받는 수혜형부모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교류규모가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손병돈(1998)의 가족 간 경제적 자원 교류에서 부모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자원의 교류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고령자가구주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자원 교류가 상호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재정 관련 변수

경제적 자원 교류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소득과 자산 및 부채는 경제적 자원 교류에 정적 영향과 부적 영향을 미쳐 각각 다른 연구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타주의적 관점(손병돈, 1998; McGarry & Schoeni, 1995, 1997; Dunn, 1993; Tomes, 1981)에서 보면, 부모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 수혜량이 감소하지만, 교환주의적 관점(Secondi, 1997; Cox & Rank, 1992; Bernheim et al., 1985)에서 보면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자녀로부터 받는 자원 수혜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성영애·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주택소유가 부모의 경제적 자원 교류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택을 소유한 은퇴노인의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 실태와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경제적 자원 교류가 있는 중·고령자 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가족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재정 상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중·고령자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 유형별 실태와 교류액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이다. 자료 중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중·고령자 가구주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인 호혜형 가구, 수혜형 가구, 무교류형 가구와 제공형 가구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수혜형 400가구, 무교류형 1,171가구, 제공형 108가구를 포함한 총 1,679가구를 최종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호혜형 31가구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수혜액과 제공액에 의해 산출되는 호혜형 교류액이 결측치를 갖는

호혜형가구가 14가구로 남은 호혜형 17가구만으로는 다른 교류유형 가구와 비교하는데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재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추후 검증으로서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Heckman의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Model(SBCR)²⁾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방법은 SAS/PC Statistic Program(Version 9.1)이다.

<표 2> 중·고령자가구의 일반적 특성

범주변수	구 분	빈도(1679)	%	범주변수	구 분	빈도(1679)	%	
성 별	남	1304	77.67	자가유무	전·월세	402	23.94	
	여	375	22.33		자 가	1277	76.06	
연 령	50대	718	42.76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수혜형	400	23.82	
	60대	598	35.62		무교류형	1171	69.74	
	70대 이상	363	21.62		제공형	108	6.43	
	초졸 이하	670	39.90		수혜이전자	아 들	197	49.25
고졸 이하	783	46.63	딸	78		19.50		
전졸 이상	226	13.46	아들·딸	102		25.50		
은퇴유무	비은퇴	1122	66.83	기 타		23	5.75	
	은 퇴	557	33.17	제공이전자	아 들	43	39.81	
거주지	서 울	375	22.33		딸	9	8.33	
	광역시	528	31.45		아들·딸	8	7.41	
	기타도시	776	46.22		부 모	28	25.93	
가족유형	무배우자가구주	238	14.49	부모·자녀	부 모·자녀	4	3.70	
	부 부	352	21.42		기 타	16	14.81	
	부부자녀가정	761	46.32					
	무배우자가구주자녀가정	181	1102					
	모든가구주부모포함가정	111	6.76					

연속변수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연속변수	빈 도	평균	표준편차
총소득(만원/월)	1679	124.30	216.85	가족관계만족도(점)	1679	3.52	0.67
총지출(만원/월)	1679	130.42	105.59	현재건강상태(점)	1679	2.93	0.96
총실물자산(만원)	1569	13776.51	18118.47	순수혜액(만원)	400	24.07	25.69
총금융자산(만원)	1016	3244.89	7434.61	순제공액(만원)	108	37.67	63.97
총자산(만원)	1615	15425.48	20404.41	수혜이전자수(명)	400	1.58	0.72
총부채(만원)	589	4896.63	22285.81	제공이전자수(명)	108	1.23	0.52
현재경제상태(점)	1679	2.31	0.88				

*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해 변인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있음

1)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조사 중 6차 조사에만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부가 표본이 추가되어 있어 6차 패널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였다.

2) SBCR모델은 경제적 자원 교류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경제적 자원교류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각각 다른 특성의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교류를 하지 않는 가구에 의해 나타나는 선택 편이의 문제를 수정한 회귀분석으로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고령자가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

중·고령자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중·고령자가구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구주가 여자가구주의 3배이며, 그 중 유배우자 가구주는 무배우자 가구주의 2배정도가 된다. 또 가구주의 연령은 50대, 60대, 70대의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그들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 가구주 중 은퇴한 가구주는 취업한 가구주의 약 2배였다. 중·고령자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기타 도시가 가장 많아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부부자녀가정 가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부부, 무배우자가구주순으로 분포하였다.

또 중·고령자가구주의 총소득은 평균 124.30만원, 중·고령자가구의 총지출은 평균 130.41만원이었다. 중·고령자가구의 총실물자산은 평균 13776.51만원, 총금융자산은 평균 3244.89만원으로 총실물자산과 총금융자산의 합인 총자산은 평균 15425.48만원, 총부채는 평균 4896.63만원이었으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3/4 정도였다.

한편 중·고령자 가구주가 인식한 현재경제상태와 현재건강상태는 각각 평균 2.31점, 평균 2.93점을 보여 보통수준보다 못미치는 약간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가족관계만족도는 평균 3.52점으로 보통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을 살펴보면 수혜형은 23.82%, 무교류형은 69.74%, 제공형은 6.43%로 가족 간 교류를 하는 가구보다 교류를 하지 않는 가구가 2배가량 많았으며, 이중 경제적 자원 수혜형가구의 순수혜액은 평균 24.07만원, 경제적 자원 제공형 가구의 순제공액은 평균 37.67만원이었다. 교류유형중 수혜형가구에게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는 수혜이전 자로는 아들이 49.2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수혜이전자수는 1.58명이었고, 제공형가구에게 경제적 자원을 지원받는 제공이전 자로는 아들이 39.81%, 중·고령자가구주가구의 부모가 25.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제공이전자수는 1.23명이었다.

2.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일반적 특성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은 수혜형의 경우 남녀비율이 비슷하였고 무교류형과 제공형은 남자비율이 각각 80%를 넘어 여자보다 훨씬 많았다. 이처럼 무교류형과 제공형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남자가구주가 여자가구주에 비해 노동능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수혜형 가구주는 70대 이상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무교류형 가구주는 50대가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형 가구주도 50대가 6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가구주의 학력은 수혜형 가구주의 경우 초졸이하, 무교류형과 제공형 가구는 고졸이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제공형 가구는 전문대졸 이상이 17.59%를 차지해 다른 교류유형에 비해 고학력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은퇴유무는 수혜형 가구주의 은퇴가 비은퇴보다 2배가량 많은 반면, 무교류형 가구주는 비은퇴가 은퇴보다 3배가량 많았고 제공형 가구주는 비은퇴가 은퇴보다 5배이상 많았다. 이는 수혜형 가구주의 절반이상이 여성가구주이고 70대이상의 비율이 높아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는 수혜형과 무교류형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제공형의 약 3배 가량이었으며, 제공형의 경우 기타도시에 절반이 조금넘는 비율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을 보면, 수혜형 가구는 무배우자가구주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반면, 무교류형과 제공형 가구는 부부자녀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무배우자가구주일 때 경제적 자원 수혜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처럼 독거노인이 다른 가족유형의 노인보다 빈곤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자가유무는 모든 교류유형에서 전·월세의 비율이 자가비율보다 낮았는데, 각 교류유형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제공형이 가장 낮았다.

가구주의 현재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을 보면, 모든 교류유형에서 보통수준보다 낮았으며, 특히 다른 교류유형에 비해 수혜형의 현재경제상태 인식이 가장 낮았다. 이는 사회적 위험³⁾을 겪어 소득을 상실한 부모에게 자녀들이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노령이나 질병, 퇴직 등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수혜액도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가구주의 가족관계만족도는 모든 교류유형에서 평균 3점을 넘어 보통이상의 가족관계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교류형 가구주의 가족관계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제공형, 수혜형 순이었다. 이처럼 제공형 및 무교류형의 만족도가 높고 수혜형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한민아(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구주의 현재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무교류형과 제공형 가구주는 보통수준을 조금 넘는 건강상태로 인식하였으나 수혜형 가구주는 보통 이하의 건강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사회적 위험 : 노령, 질병, 실업과 같은 현대인에게 소득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들.

<표 3>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일반적 특성

범주변수		수혜형(400)		무교류형(1171)		제공형(108)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별	남	214	53.50	993	84.80	97	89.81	178.21 ***
	여	183	46.50	178	15.20	11	10.19	
연 령	50대	38	9.50	615	52.52	65	60.19	363.99 ***
	60대	154	38.50	409	34.93	35	32.41	
	70대이상	208	52.00	147	12.55	8	7.41	
학 력	초졸이하	261	65.25	380	32.45	29	26.85	144.07 ***
	고졸이하	116	29.00	607	51.84	60	55.56	
	전졸이상	23	5.75	184	15.71	19	17.59	
은퇴유무	비은퇴	153	38.25	877	74.89	92	85.19	198.14 ***
	은퇴	247	61.75	294	25.11	16	14.81	
거주지	서울	82	20.50	286	24.34	8	7.41	18.16 **
	광역시	122	30.50	365	31.17	41	37.96	
	기타도시	196	49.00	521	44.49	59	54.63	
가족유형	무배우자가구주	136	35.60	95	8.23	7	6.54	293.118 ***
	부부	113	29.58	212	18.7	27	25.23	
	부부자녀가정	65	17.02	642	55.63	54	50.47	
	무배우자가구주자녀가정	61	15.97	111	9.62	9	8.41	
	모든가구주부모포함가정	7	1.83	94	8.15	10	9.35	
자가유무	전·월세	119	29.84	269	22.97	14	12.96	15.164 ***
	자가	281	70.25	902	77.03	94	87.04	

연속변수	수혜형(400)		무교류형(1171)		제공형(108)		F
	평균	D	평균	D	평균	D	
현재경제상태	2.25	C	2.60	B	2.79	A	36.98 ***
가족관계만족도	3.37	B	3.57	A	3.56	A	13.68 ***
현재건강상태	2.48	B	3.05	A	3.19	A	61.30 ***

p<.01, *p<.001

<표 4>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재정 상태

재정상태 변수	수혜형(400)		무교류형(1171)		제공형(108)		F값
	평균	D	평균	D	평균	D	
총소득(만원/월)	71.85	C	135.99	B	191.86	A	19.05 ***
총지출(만원/월)	65.73	C	147.98	B	179.50	A	117.20 ***
총실물자산(만원)	9377	B	15158	A	14313	A	14.11 ***
총금융자산(만원)	1441.00	B	3656.70	A	3661.80	A	6.91 **
총자산(만원)	9703.00	B	17218.00	A	16568.00	A	19.78 ***
총부채(만원)	2701.00		5382.00		4260.00		0.55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재정 상태 비교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재정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고령자가구주의 총소득은 제공형 가구의 경우 평균 191.86만원, 무교류형 가구의 경우

평균 158.99만원, 수혜형 가구의 경우 71.8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령자가구의 총지출도 총소득과 같이 제공형 가구, 무교류형 가구, 수혜형 가구 순이었으며, 제공형 가구의 총지출액 179.50만원은 수혜형 가구의 총지출액 65.728만원의 3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가구의 총금융자산은 제공형 가구와 무교류형

가구가 수혜형 가구에 비해 2.5배 많았으며, 총실물자산에서는 제공형 가구와 무교류형 가구가 수혜형 가구보다 1.7배정도 많았다. 또 총자산에서도 제공형 가구와 무교류형 가구가 수혜형 가구보다 1.7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금융자산액, 총실물자산액, 총자산액 모두 제공형 가구와 무교류형 가구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수혜형 가구는 그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중·고령자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경제적 자원 수혜형 가구가 제공형 가구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가 재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지연, 2006; 박경숙, 2003; 배희선·최현자, 2002; 하운숙, 1999; Julie, 2000; Cox·Rank, 1992)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중·고령자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 교류액

중·고령자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 교류액을 살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경제적 자원 수혜형 가구를 보면 수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가족유형, 수혜이전자, 자가유무를 들 수 있다. 가구주의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일 때, 이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경제적 자원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는 Starrels 등(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박미려, 2007에서 재인용). 가구주의 연령에서는 50대 가구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수혜액이 가장 많았고, 학력에 있어서는 전문대졸 이상이 다른 학력에 비해 수혜액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 때 경제적 자원을

<표 5> 중·고령자가구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 교류액

		수혜형(400)		t/F	제공형(108)		t/F
		mean	S.D/D		mean	S.D/D	
성 별	남	27.27	28.93	-2.75***	38.74	67.04	-1.09***
	여	20.39	20.84		28.18	23.05	
연 령	50대	36.74	A	7.09***	41.11	AB	2.47
	60대	25.70	B		22.74	B	
	70대 이상	20.55	B		75.00	A	
학 력	초졸 이하	21.06	B	5.40***	21.17	B	6.38**
	고졸 이하	29.26	AB		31.60	B	
	전졸 이상	32.09	A		82.00	A	
은퇴유무	비은퇴	23.24	24.38	-0.51	40.76	68.66	2.62***
	은 퇴	24.59	26.51		19.88	13.98	
거주지	서 울	31.76	A	4.70**	31.88		0.24
	광역시	21.99	B		33.17		
	기타도시	22.15	B		41.58		
가족유형	무배우자가구주	15.94	C	10.49***	49.29		0.38
	부 부	22.76	BA		35.67		
	부부자녀가정	38.40	A		34.63		
	무배우자가구주자녀가정	30.74	AB		31.33		
	모든가구주부모포함가정	19.29	BC		59.10		
수혜이전자	아 들	28.92	A	9.69***			
	딸	27.71	A				
	아들·딸	14.58	B				
	기 타	12.35	B				
제공이전자	아 들				62.79		2.46*
	딸				24.56		
	아들·딸				11.13		
	부 모				18.79		
	부모·자녀				18.75		
기 타				28.56			
자가유무	전·월세	26.83	28.55	1.31*	22.43	12.45	-2.25***
	자 가	22.90	24.34		39.94	68.17	

*p<.05, **p<.01, ***p<.001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고(진재문, 1999; Cox, 1987), 은퇴노인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경제적 자원 수혜액이 많다는 박미려(2007)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거주지는 서울, 광역시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자원 수혜액이 많다는 박미려(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도시보다 비도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Secondi(199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가족유형은 부부자녀가정의 수혜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배우자가구주자녀가정, 부부가정, 무배우자가구주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와 가까이에 살수록 경제적 자원 수혜를 받는데 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Cox · Rank, 1992; McGarry, 1997). 수혜이전자에서는 아들에게만 받는 경우 약 28만원, 딸에게만 받는 경우 약 27만원에 비해 아들딸 모두에게 받거나 다른 가족원들에게 받는 경우 수혜액이 적었다. 한편 수혜형 가구는 자가보다 전·월세일 경우 수혜액이 많았는데 이는 부모의 재정상태가 나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자원 제공형 가구를 보면 제공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성별, 학력, 은퇴유무, 제공이전자, 자가유무를 들 수 있다. 제공형 가구주의 성별에서는 여자가구주보다 남자가구주의 제공액이 10만원 가량 많았으며,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의 제공액이 약 1.5배 가량 많았다. 가구주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의 제공액이 고졸이하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또 비은퇴 가구주의 제공액은 은퇴 가구주의 제공액보다 2배 가량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은퇴 가구의 경우 은퇴가구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공이전자는 중·고령자가구주정이가들에게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액이 다른 가족원보다 2배이상 많았다. 또 자가 가구는 전·월세 가구에 비해 제공액이 18만원 가량 많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자가 가구의 재정상태가 전·월세 가구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 제공액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5.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별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Heckman의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Model(SBCR)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4)을 확인한 후,

4)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체 중·고령자가구에서는 총자산*총실물자산(0.9563, $p<.0001$), 총자산*총금융자산(0.5419, $p<.0001$)로 나타났으며, 수혜형에서는 총자산*총실물자산(0.9920, $p<.0001$), 무교류형에서는 총지출*총소득(0.5869,

VIF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난 변수만을 연구모델에 포함하였다. 중·고령자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중·고령자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50대, 60대), 학력(고졸이하), 은퇴유무, 가족유형(독거), 현재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자가구의 가구주가 여자일 때, 가구주의 연령이 50대, 60대 일 때 보다 70대 이상일 때,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에 비해 초졸이하일 때, 은퇴했을 때, 가족유형이 중·고령자가구주가정이 그들의 부모 및 자녀와 함께 살 때보다 독거일 때보다 현재경제상태를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무교류형 가구보다 수혜형 가구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무배우자일 때, 경제적 자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Secondi(1997),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경제적 자원 수혜의 가능성이 크다는 진재문(1999)의 연구결과와 같다. 또한 현재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은 빈곤한 수혜자일수록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타주의 이론(Altruism Theory)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50대), 가족유형(부부자녀가정), 현재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수혜이전자수, 수혜이전자(아들), 월평균총소득, 총자산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경우 70대 이상인 경우 보다 수혜액이 더 많았는데, 이는 부모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한 선행연구(진재문, 1999; Secondi, 1997; 박미려, 2007)에서 재인용)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가족유형의 경우 부부자녀가정이 모든가구주부모포함정보보다 경제적 자원 수혜액이 더 많았고, 수혜이전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 자원 수혜액은 많았으며, 수혜이전자가 기타가족원일 때보다 아들일 때 수혜액이 많았다. 또 중·고령자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월평균총소득이 많을수록 수혜액이 많은 결과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모일수록 경제적 자원 수혜를 많이한다는 박미려(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 수혜액이 많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많을수록 가족 간 경제적 자원 이전량이 많다는 손병돈(1998)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p<.0001$), 총자산*총실물자산(0.9508, $p<.0001$), 총자산*총금융자산(0.5477, $p<.0001$), 제공형에서는 총지출*총소득(0.7864, $p<.0001$), 총자산*총실물자산(0.9656, $p<.0001$), 총자산*총금융자산(0.5737, $p<.0001$), 총자산*총부채(0.5827, $p<.0001$)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한 변수(총지출, 총실물자산, 총금융자산, 총부채)는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수	수혜형		수혜액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성 별	-0.404*	0.159	8.275	7.835	
연 령	50대	-1.235***	0.134	37.254*	18.655
	60대	-0.477***	0.101	12.479	8.334
학 력	초졸 이하	0.425*	0.166	-12.628	8.888
	고졸 이하	0.171	0.160	-1.405	6.217
은퇴유무	0.591***	0.093	-12.001	9.122	
거주지	서 울	0.027	0.116	4.162	3.539
	광역시	-0.005	0.100	-0.810	2.953
가족유형	무배우자가구주	0.498*	0.204	-17.027	9.512
	부 부	0.246	0.178	-5.741	6.763
	부부자녀가정	-0.126	0.178	16.794**	6.117
	무배우자가구주자녀가정	0.346	0.205	-3.267	7.931
수혜이전자수			-7.422**	2.784	
수혜이전자	아 들			12.165*	5.775
	딸			9.450	6.297
	아들·딸			9.450	6.376
현재경제상태	-0.170**	0.056	6.739*	3.089	
가족관계만족도	0.053	0.069	3.142	2.170	
현재건강상태	-0.039	0.049	-0.637	1.531	
월평균총소득	0.000	0.000	0.007*	0.003	
총자산	-0.000	0.000	0.001**	0.000	
자가유무	0.005	0.107	-5.795	3.092	
Lambda			78.015	45.404	
Intercept	-0.153	0.367	28.355	23.864	
Log likelihood	-581.283				
R-square			0.258		
F-value			5.33***		

*p<.05, **p<.01, ***p<.001

6.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제공 및 제공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고령자의 경제적 자원 제공여부 및 제공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경제적 자원 제공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주지(서울), 월평균총소득, 자가유무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자 가구가 서울에 거주할 때 보다 중소도시 및 기타도시에 거주할 경우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중·고령자의 월평균총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자원 이전 가능성이 크다는 손병돈(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중·고령자 가구가 자가에 거주할 때 경제적 자원 제공형 가구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자가소유가 경제적 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제공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50대, 60대), 가족유형(독거, 부부, 무배우자와자녀), 제공이전자(아들), 가족관계만족도, 자가유무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의 연령을 보면 50대, 60대 일 때보다 70대 이상일 때 제공액이 많았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은 생애기간이 짧아지므로 자녀들에게 유산 및 재산을 상속해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유형에서는 독거, 부부, 무배우자 가구주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보다 부모와 가구주가정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제공액이 많았는데 이는 가구주 가정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보다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중·고령자 가구에서는 자녀뿐만이 아닌 가구주의 부모님께도 경제적 자원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용과 부부양비용이 동시에 들어 제공액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제공이전자 중 아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족 간 관계가 긍정적인 때 경제적 자원 교류가 활발히

<표 7>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제공여부 및 제공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수	제공형		제공액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성 별	0.206	0.246	-46.314	29.109
연 령	50대	0.345	-126.285***	32.117
	60대	0.216	-108.178***	27.602
학 력	초졸 이하	-0.101	-9.879	21.207
	고졸 이하	0.019	-23.270	15.737
은퇴유무	-0.239	0.158	13.209	20.567
거주지	서 울	-0.637***	69.846	38.434
	광역시	-0.004	-14.909	11.613
가족유형	무배우자가구주	0.339	-119.539**	44.380
	부 부	0.409	-128.375**	36.623
	부부자녀가정	0.022	-39.554*	20.316
	무배우자가구주자녀가정	0.281	-78.667	34.703
제공이전자수			-17.275	18.878
제공이전자	아 들		48.125*	18.354
	딸		1.635	25.156
	아들·딸		33.258	30.052
	부모		6.469	20.099
	부모·자녀		5.149	32.645
현재경제상태	0.102	0.074	-4.116	9.663
가족관계만족도	-0.175	0.089	38.648**	14.099
현재건강상태	-0.031	0.066	-9.882	6.875
월평균총소득	0.001**	0.000	-0.111	0.094
총자산	-0.000	0.000	0.001	0.000
자가유무	0.357*	0.166	-58.209*	28.752
Lambda			1048.496**	339.154
Intercept	-1.758***	0.527	103.524	60.702
Log likelihood		-334.019		
R-square			0.561	
F-value			4.09***	

*p<.05, **p<.01, ***p<.001

일어나며 과거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에 대한 사상이 잔존하여 아들 및 장남에게 유산 및 상속 등 경제적 자원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중·고령자가구의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 제공액이 크게 나타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자가유무에 있어서 중·고령자가구가 전·월세 및 기타에 거주할 때 경제적 자원 제공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제공여부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이는 경제적 자원 제공자가구의 자가유무의 빈도와 제공액의 표준편차 분포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령자가구의 가족 간 경제적 자원 교류 유형의 실태를 보고, 교류유형 중 수혜형의 수혜여부와 수혜액, 제공형의 제공여부와 제공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 교류액의 차이를 보면, 수혜형 가구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개인적 특성과 자가유무, 거주지, 가족유형, 수혜이전자와 같은 가족환경요인에 따라 교류액의 차이가 있었고, 반면

에 제공형 가구는 가구주의 성별, 학력, 은퇴유무 등의 개인적 특성과 자가소유여부, 제공이전자에 따라 교류액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수혜형과 제공형 가구를 볼 때 교류액의 차이를 보이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환경요인 및 재정상태 등의 변수들은 각 교류유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주요 변수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무교류형에 비해 수혜형 가구에 포함될 가능성에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은퇴유무, 가족유형 및 현재경제상태 인식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주된 영향을 미쳤으며, 수혜액은 개인적 특성인 가구주 연령, 가족환경적 요인인 가족유형, 수혜이전자, 재정적 요인인 총소득, 총자산, 현재경제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형 가구에 포함된 가구의 자립도와 의존도에 대한 특성분석과 함께 의존적 수혜형 가구에 포함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 특성요인을 고려해야 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제공여부 및 제공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무교류형에 비해 제공형 가구에 포함될 가능성에는 자가유무, 거주지 같은 가구적 특성과 총소득이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자원 제공액에는 가구주의 연령, 자가유무, 가족유형, 가족관계만족도, 제공이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 제공액이 가구주의 재정상태 및 가족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제공형 가구의 가족유형, 가족관계 등 제공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무교류형, 수혜형 및 제공형에 포함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함에 있어서, 수혜형 가구는 제공형 가구와 달리 자녀와 다른 가족들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가구주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및 학력 등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원수 등의 가족환경요인을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수혜액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부유한 재정상태의 가구가 자녀 및 다른 가족과 교류적 의미로 경제적 자원을 지원받는 수혜형의 가구와 빈곤한 재정상태의 의존적 수혜형 가구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존적 수혜형 가구의 포함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공형 가구는 가구주 성별, 배우자 유무, 학력 및 은퇴유무 등의 개인적 특성과 자가유무에 따라 제공액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원을 지원받는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단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고령자가구의 수혜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면, 가구주의 특성 외에 가족환경 및 재정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존적 수혜형 가구의 경우 연령, 자가유무, 가족유형, 총소득수준 및 총자산상태를 고려한 수혜액의 실태파악과 수혜액의 증대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특히 의존적 수혜형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자녀와 다른 가족들이 수혜액 부담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공적 지원체계의 정착과 활용에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고령자가구의 제공형 및 제공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제공형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주지와 재정상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반해, 제공액에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환경요인, 재정적 요인 모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수혜액과 달리 제공액에서는 중·고령자가구주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어 부모가 관련된 변수인 가족유형, 제공이전자 등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노후를 계획해야하는 시점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해야하는 부담 및 어려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경제활동시기에 비해 노후시기가 길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중·고령기를 경험하게 될 현재의 청·장년층의 가정경영생활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원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호혜형 가구를 제외한 제공형, 수혜형 및 무교류형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자료는 일방적 수혜자와 일방적 제공자의 입장에서 수집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자원 교류 형태를 경제적 자원으로만 국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의 한계는 교류유형을 다각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도출하며, 수혜자와 제공자 간의 쌍방적 입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원 교류실태와 교류액에 대한 실제적 분석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서비스, 시간 및 정서적 자원을 포함하지 않고 경제적 자원에 국한된 자원교류의 검증은 편향된 연구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수혜형 가구 중 자발적 수혜와 의존적 수혜의 성격을 규명하지 못하는 점 등은 수혜형 가구에 포함 될 가능성과 수혜액에 대한 진단을 정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 쌍방적 교류분석을 위한 사전적 조사, 교류대상인 다양한 자원의 범위확대, 그리고 교류의 동기 등을 포함한 정교한 모델의 진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영순(2007).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재정상태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덕·손병돈(1995). 1982~92년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 변화 추세: 소득원천별,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 조세부담. **사회복지연구**, 6, 91-115.
- 김두섭 · 박경숙 · 이세용(1999).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회, 328-334**.
- 문영소 · 김양희(1999). 한국가족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57-171.
- 박경숙(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회지**, 36(2), 61-94.
- 박미려(2007). 은퇴노인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능후 · 송미영(2006).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 31, 7-26.
- 배종열(1997). 현대 한국가족의 재산상속관행 : 대구시 남자가구 주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희선 · 최현자(2002).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 **대한가정학회지**, 40(6), 99-115.
- 백은광(2000). 공 · 사적 이전소득이 빈곤층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병돈(1999). 사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9, 157-179.
- 손병돈(1998). 가족 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의 계층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11, 79-105
- 윤성민(2000). 노인부양의 경제적 지용 계층 및 분석. **한국지역사회학회지**, 8(1), 155-175.
- 윤현숙(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23(3), 15-28.
- 이윤정(199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 부담정도과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형 · 김근홍(2003). 노인 가계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16, 43-60.
- 이정읍 · 김명자(2001).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51-165.
- 정영숙(2002). 은퇴한 노인의 부 및 최저소비와 상속동기. **소비자학연구**, 13(2), 81-97.
-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3, 167-199.
- 최현수 · 류연규(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3(3), 143-160.
- 하운숙(1999). 사적소득이전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민아(2004). 세대간 지원교환관계와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tonji, J. G., Hayashi, F. & Kothlikoff, I. J. (1997). Parental altruism and inter vivos transfer: theory and evid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6), 1121-1166.
- Behrman, J. R., Pollak, R. A. & Taubman (1982). Parental preferences and provisions for their progen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Feb), 52-73.
- Cox, D. & Rank, M. R. (1992).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546.
- Lee, G. R., Netzer, J. K., & Coward, R. T.(1995). Depression among older parents: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23-833.
- Lee, Y., Parish, L & Willis, J. R (1994). Sons,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Taiw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4), 1010-1041
- McGarry, K. & Schoeni, R. F. (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McGarry, K. & Schoeni, R. F. (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Mutran. E. & Reitzes, C. (1984). Intergener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Well-Being Among the Elderly : a convergence of exchange and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17-130.
- Shi, Leiyu,(1993), "Family Financial and Household Support Exchange between Generations : A Survey of Chinese Rural Elderly", *The Gerontologist*, 33(4), 468-480.
- Secondi, G.(1997). "Private Monetary Transfers in Rural China: Are Families Altruistic?".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3(4), 487-511.
- Tomes, N. (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38-958.

□ 접수일 : 2008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04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9월 26일